

삼립식품,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파리크라상 선정

3월 11일 파리크라상컨소시엄과 양해각서 체결

국내 양산 제빵업계에서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립식품이 지난 3월 11일 자사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파리크라상컨소시엄을 선정, 투자유치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3월 25일 현재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난으로 인해 1997년 5월부터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간 삼립식품은 지난 2월 M&A를 추진하기 위해 LG투자증권과 삼화회계법인을 주간사로 선정해 그동안 인수 기업을 물색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파리크라상과 구조조정 전문 회사인 골든브릿지사 등이 참여한 이번 인수과정에서 삼립측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파리크라상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파리크라상은 삼립식품에 인수가액으로 1,06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측은 최종 인수가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 금액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 실사작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피인수 기업을 최종 인수하는 것이 정례인 점을 감안하면 (주)샤니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이 양산 제빵업체인 삼립식품을 인수하는 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삼립식품의 파리크라상 인수로 인해 양산 제빵업계에서는 상당한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양산 제빵업체의 매출을 살펴보면 샤니가 1,900억원을, 삼립식품이 1,39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관련 업체 4개사 전체 매출인 4,307억원의 약 76%에 해당하는 매출 규모를 두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산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파리크라상의 모기업인 샤니와 삼립식품이 합병될 경우 다른 양산업체들의 향후 대응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양산업체의 반응은 업체의 상황에 따라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의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인수가 이뤄질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저축 요소를 안고 있는 샤니의 프로모션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경쟁적으로 벌여온 영업전략이 수정되면 영업 확장에 과다 지출되던 프로모션 비용이 제품 개발비용으로 연계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더욱 고급화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양산업체의 마케팅 관계자들 대부분은 인수가 결정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인수 이후 샤니측이 어떤 영업전략을 취할 지에 따라 타사 마케팅에도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돼 향후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오형석 / ohs@mbakery.co.kr〉

대영공업, '산업 발전 기여 업체' 선정 제29회 상공의 날,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여

제29회 상공의 날 기념식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내 상공인, 해외 상공인, 주한외국 상공인, 근로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0일 오전 11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베이커리 업계에서 대영제과제빵기계공업(주) 조기호 사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모범 상공인, 모범관리자, 모범사원 등 총 182명이 정부 및 경제단체장의 훈장을 받았다.

산업자원부 장관상은 산업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업체의 사기 진작 및 공로 치하를 위해 수여되고 있다. 관련 인터뷰 65쪽 참조.

〈임희정 / lim@mbaker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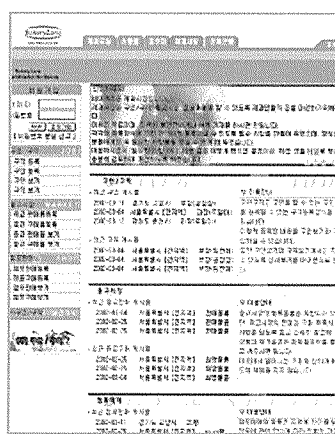
우정공업, '베이커리존' 개편 구인구직 및 점포매매 코너 마련

우정공업(www.bakeryzone.net)이 지난 3월 자사 홈페이지 베이

커리존을 개편했다.

이 업체는 리뉴얼된 홈페이지에 무료 구인구직, 중고시장, 점포매매 등의 코너를 신설해 제과인을 위한 무료 사이트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정공업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구축을 강화해 온라인 마케팅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제과전문 도구물에



충실한 사이트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업체는 이번달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02 서울 국제식품기술전>을 대비해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희정 / lim@mbakery.co.kr〉

**밀탑베이커리, (주)기린에서 법인 독립
별도 법인 추진 ... 프랜차이즈 사업 본격화**

(주)기린이 운영해오던 프랜차이즈인 밀탑베이커리가 이번 달 본사로부터 독립함으로써 독자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한다.

본사인 (주)기린으로부터 분사(分社) 형식을 통해 주식회사로 탈바꿈하는 밀탑베이커리는 (주)밀탑으로 공식 법인화를 선언하면서 대표이사에 이영석 사장을 임명하는 등 법인직업을 마치고 4월부터 직영점 및 가맹점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기린 본사 마케팅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린 사업부에 '밀탑'이 소속돼 있어 본사 차원에서 정책 배려나 비용부담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특히 생산비용에서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 이번 분사를 통해 효율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자체 영업력을 키워 나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의 독립 법인화 조치는 급변하고 있는 소비자 기호와 시장 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의 계통을 집약해 효율화하는 동시에 프랜차이즈 사업비용의 경제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주)밀탑은 사원들이 주주로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회사 운용 자본에 사원과 회사 참여자분이 50대 50으로 구성돼 있어 직원들의 능동적인 업무 참여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마케팅 부문에서도 (주)기린 본사의 영업 노하우가 지원될 것으로 보여 향후 프랜차이즈 사업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평가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3년간은 무리한 외형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성장 기초를 유지하는 정책을 펴 나갈 예정"이라며, "2005년을 기점으로 서울에 로드숍을 개설하는 등 수도권 진출을 모색함으로써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밀탑베이커리는 현재 부산과 대구에 20곳의 직영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구에 가맹점 34곳을 운영하고 있는 등 약 50군데의 매장을 통해 영남권에서 점차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다.

〈오형석 / ohs@mbakery.co.kr〉

**뚜레쥬르, 봄 신상품 5가지 출시
'봄'을 향과 색으로 이미지화한 빵류**



뚜레쥬르(<http://tlj.cj.net>)가 지난 3월 15일 봄을 컨셉으로 하는 신제품 빵 5종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의 구성은 자연의 향과 칼라를 이미지화한 것으로 딸기와 포도를 소재로 한 식빵과 소보로빵, 아채카레빵 등이다.

신제품에 대해 마케팅의 한 관계자는 "인공색소가 아닌 천연과즙을 사용해 은은한 자연의 과일향이 특징"이라며, "'과일식빵'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인 베이커리 업종에서 처음으로 개발, 접목한 사례"라고 말했다.

사전 고객조사와 고객반응 테스트를 통해 상품화 작업을 마무리한 이번 신제품은 딸기·포도식빵은 2,300원, 포도소보로빵은 800원, 아채카레빵은 2,6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한국능률협회 매니지먼트가 심사한 '2002년 우수 프랜차이즈 신용평가'에서 외식/제과제빵부문 최우수 등급인 'AAA'를 2년 연속 획득했다.

외식, 서비스 등 1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 이 업체는 Web-Pos시스템인 TIS의 선도적인 도입과 고객 만족도 증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형석 / ohs@mbakery.co.kr〉

**고려당, 온라인 쇼핑몰 '케익앤케익' 오픈
3월 28일 오픈 ... 케이크에서 일반제품까지**

프랜차이즈 업체인 고려당이 3월 28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인터넷상에서 본격적인 판매사업에 나선다.

케익앤케익(www.cake&cake.co.kr)이란 사이트로 운영되는 이 쇼핑몰에서는 조각 무스케이크, 생크림케이크, 버터케이크 등 케이크류 50종과 일반 빵제품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 받고 있다.

또한 이 업체는 상용화를 위해 테스트 작업 중인 택배용 박스의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아이스크림과 냉동생지의 판매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케익앤케익 쇼핑몰에는 베이커리 관련 업체의 배너광고가 실리며 주문은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 모두 가능하다.

이 업체 특판팀의 박용업 과장은 "국내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진척돼 있어 지난해부터 사업 구상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앞으로 오픈 행사 등을 통해 인터넷 고객과의 밀접한 연계를 계획하는 등 온라인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형석 / ohs@mbakery.co.kr〉